「코로나 19」 감염병 관련 천주교 춘천 교구장 담화문

친애하는 춘천교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례력으로 사순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의 시기에 기도와 단식, 자선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며 성화의 길로 나아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청정지역 춘천교구 관할에도 「코로나-19」의 감염자 환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감염자가 더 늘지 않도록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종교행사와 같이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나, 밀집하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천주교 춘천교구도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신자들과 감염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 춘천교구 관할 지역 내 해당 본당의 종교활동을 3월 13일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사목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 춘천교구 관할 지역에 사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전염병의 공포만큼이나 더욱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런 재난의 시기에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데 솔선수범하기를 희망합니다.

천주교 춘천교구는 최선을 다해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천주교 신자 모두는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고 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과 교구 내 각 지역의 관계자들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되는' 춘천교구 교우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 정신인 기도와 단식, 자선으로 이 재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친애하는 교우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 김운회

천주교 춘천교구 교 구 장 김 운 회 루카 주교